

社說

청와대와 검찰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검찰이 갖고 있는 칼의 사용 범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로 인해 청와대-민주당과 검찰이 맞섰다.

검찰 개혁을 위한 문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조 후보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검찰의 수사가 전개되면 필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비난과 압박 강도는 도를 더해갈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한쪽은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을 생채기 내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의혹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냐는 이유로 맞붙었다. 양측의 주장과 설명이 다 그럴 듯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정파적 대립 갈등이 뚜렷한 대한민국 여론인자라 자기편 주장과 논리만 금과옥조처럼 받든다.

그럴 개연성이 크지는 않지만 이쯤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휴전을 해야 하는데 물밑 접촉에 나설 사람이 마땅히 없다. 민정수석이 나서야 하는데 민정수석은 법조인 출신이 아닌 감사원 출신이다. 법무장관은 있으나마나 보이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박영수 특별검사인데 그도 그냥 보고만 있다.

그래도 휴전이 서로의 내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러려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대총 얼버무려야 하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6월 15일)을 목전에 둔 선거에서도 야당에 졌다.

조국 사태에 대한 한겨레 기자들의 성명

◆ 금남로에서



이문수
본지 편집인 겸 사장

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 법조팀 소속 강희철 기자는 '강희철의 법조외전'이라는 코너를 담당하고 있다. 강 기사는 지난 5일 "우병우 대자뷰" 조국, 문 정부 5년사에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 후보자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작성했다.

해당 기사는 데스크의 승인을 거쳐 이날 오후 4시15분 인터넷 한겨레에 출고됐다. 그러나 불과 4분만에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담당 데스크는 강 기자에게 "이 시기에 나갈 기사가 아니"라며 "기사를 무제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기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이 칼럼은 박용현 편집국장의 지시로 출고되자마자 삭제된 것이며, 혐 정권 출범 이후 비판적 보도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담당 데스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이유로 세 가지 들었다. 첫째 한겨레는 조와 맞지 않다. 둘째 한겨레의 조 후보자 보도 스탠스와 맞지 않다. 셋째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 문제가 불거졌지만 조국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강 기사는 구체적으로 칼럼의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강 기사의 조국 보도가 출고되지 못한 건 처음이 아니다. 강 기사는 지난해 12월6일에도 '강희철의 법조외전'이라는 코너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유임, 현명한 선택일까"라는 제목으로 비판 논조 칼럼을 작성했으나 기사는 출고되지 않았다.

이 사태에 한겨레 기자들은 편집회의 방과 국장실 등에 대자보를 붙였다. 기자들은 대자보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공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겨레 칼럼이 무뎠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나가지 않았다"며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TF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고 비판했다.

기자들은 특히 "김태우 수사관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이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억누르겠다는 때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 참여한 기자들은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천명한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고 성토했다.

한때는 정론 보도로 독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한겨레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한겨레 고위 인사들은 '조국 후보자 보도 참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언론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밝히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특별기고



국종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한가위, 그리고 어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만큼 외부와의 단절이 오래 지속됐다는 증거다. 사투리가 표준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지역감정이라는 고질병이 말해주듯 지역 사람들이 지역적한계를 넘어 서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 사투리는 그 지방의 역사이고 정서가 스며들어 있으며 문화라고 생각된다. 사투리를 없앨 것이 아니고 찾아내어 너도 쓰고 나도 쓰다 보면 선조들의 생각과 정서 그리고 생활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이 살았던 애환을 바탕으로 생활을 창조하고 문화를 개발하여 지방 분권화 시대에 그 고장만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 지역의 사투리 중에서도 쓰면 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 따뜻하고 정이 듬뿍 넘치며, 구수하고 맛깔스러운 맛이 나는 것이 전라도 사투리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시골집 부모님 집에 방문할 때면 어머니의 사투리 말이 가슴에 와 닿고 또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구수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투리 몇 개를 소개할까 한다.

거시기(생각나지 않을때), 낮 바닥(얼굴), 눈갈(눈알), 냉갈란다(연기), 대그백 갈아라(머리감기), 봉창 달아라(창문 닫기), 장강(장독대), 직간간다(회상실), 술찬하다(상당하다), 갈구 나무(마른나무 잎), 빠삭빠삭(잘안다) 등 수없이 많은 사투리 중 자주 사용하는 것 몇 개 적어 보았다.

필자 역시 사투리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말하다 보면 무심코 사투리가 종종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의 구수한 사투리는 언제나 정겹고 마음이 편하며 일상의 힘든 일들이 사투리 한마디로 마음 속을 녹여내려 시원하게 하는 느낌이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식 잘되기만을 항상 걱정하고 시골집에 오면 밥도 머슴밥 먹듯이 고봉(그릇위로 수북한밥)으로 주신다.

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면 평탄한 표준어보다 간혹 사투리를 곁들이면 언어에 맛깔스러움이 더해지면서 대화 분위기가 즐거워진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울타리처럼 막힌 데다 오랫동안 농경정착문화를 유지해온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투리가 유난히 많다. 지금도 경상도와 전라도 말씨가 다르고 제주도 사람들의 말씨를 육지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회장	김 경	주소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발행인	전 광 선	대표전화	(062) 227-0000 FAX (062) 227-0084
사장·편집인	이 문 수	광고	(062) 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김 경 석	등록번호	광주, 가25(월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테크노비어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의무편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위하여 주시길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